

# 일하는 행복, 행복한 일\*

안 주 엽\*\*

## 1. 들어가는 글

국제연합의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자유로이 일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적절한 근로조건을 누릴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였고, 우리 헌법 역시 제32조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근로권을 명시하고 있다.<sup>1)</sup>

일이란 무엇인가? 김영철·김진혁·이진수(2015)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일해야 하는 88가지 이유』에서 “일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이자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 특유의 사건’”(21쪽)이라 정의하고, 창세기에서 비롯된 일<sup>2)</sup>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요약(21~22쪽)<sup>3)</sup>한 후, “현재의 일을 즐기는 것이 삶에 대한 예의이자 행복의 디딤돌”(24쪽)이라고 일과 행복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일을 즐겁게 하는 자는 세상이 천국이요, 일을 의무로 생각하는 자는 세상이 지옥”이라고 갈파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궤를 같이한다.

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연봉정보사이트인페이오픈(<http://www.payopen.co.kr/>)이 29~35세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12년)에 따르면, ‘일의 의미’는 ‘보수를 받기 위한 수단’(73.8%)이며, ‘경력을 쌓아가는 수단’(51.2%),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수단’(33.2%), ‘나

\* 본고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3개년 협동연구인 ‘일과 행복’의 제1차년도 보고서 ‘일과 행복(I)’(2015년 12월 발간) 중 제3~5장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jyahn@kli.re.kr).

1) ‘Everyone has the right to work, to free choice of employmen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and to protection against unemployment.’

2) “너는 사는 동안 줄곧 고통 속에서 땅을 부쳐 먹으리라.”(창세기 3장 17절)

3) 일의 목표는 여가(아리스토텔레스), 청지기 노릇의 수단이며 천부적인 권리이자 의무(토마스 아퀴나스),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세속의 소명(마르틴 루터), 인간 자아형성의 축(그레이엄 바움), 일하는 사람을 투영하는 자화상(새뮤얼 버틀러), 남의 명령을 받거나 기다시피 하며 해야 하는 일과 남에게 이래라저래라 지시하는 일의 두 종류(버틀란드 러셀).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24.0%)인데, 17.8%는 '일하는 자체가 좋다'고 응답하고 있다.<sup>4)</sup>

최근 벌어진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은 머지않은 미래에 상당한 일자리가 알파고와 유사한 인공지능에 의해 수행될 것임을 예고하였고, 그 결과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다양한 전망들이 소개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일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요구함과 동시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이러한 일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본고는 일의 정의나 일의 의미, 행복의 정의를 다루기보다는 행복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행복의 결정요인을 탐색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일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이 199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차년도 조사부터 설문항 '전반적으로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를 통하여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여 왔다.<sup>5)</sup> 그러나 행복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Cantril Ladder나 본격적인 행복수준에 대한 설문은 포함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행복도를 파악하거나 행복의 결정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를 '행복도'의 대변수(proxy variable)로 보고, 제한된 의미에서 한국인에게 있어 행복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sup>6)</sup>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다음 장에서는 행복의 결정요인으로 인구학적 특성(성,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등), 가구소득(과 소득원별 소득 유무), 자산과 부채를 함께 고려한 행복결정모형의 추정결과를 간략하게 보여준다. 제III장에서는 이전 장에서 고려한 행복의 결정요인에 추가하여 취업상태(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 종사상지위 등)와 미취업상태(실업상태와 비경제활동상태)가 행복에 미치는 추가효과를 살펴본다. 제IV장에서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자리의 특성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일자리의 특성으로는 임금수준, 근로시간, 고용형태, 노동조합, 기업유형 등을 고려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일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주요 결과를 요약한 후 1974년 Easterlin으로부터 시작된 행복경제학(economics of happiness)의 관점에서 일과 행복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방향을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4) 브레이크뉴스, 2012년 5월 14일(<http://www.break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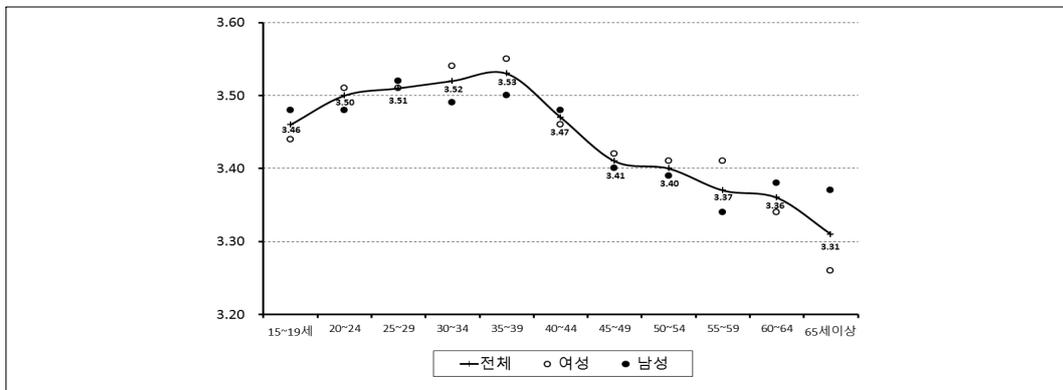
5) 이에 대한 응답항은 5점 척도(Likert scales)를 적용하여 '① 매우 만족스럽다, ② 만족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스럽다, ⑤ 매우 불만족스럽다'로 구성.

6)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이에 추가하여 (1) 가족의 수입 (2) 여가생활 (3) 주거환경 (4) 가족관계 (5) 친인척관계 (6)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으며, 취업자에 대해서는 일자리 만족도와 일 만족도를 (1) 임금 또는 소득 (2) 취업의 안정성 (3) 하고 있는 일의 내용 (4) 근로환경 (5) 근로시간 (6) 개인의 발전가능성 (7)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8) 인사고과의 공정성 (9) 복리후생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다.

## II. 행복의 결정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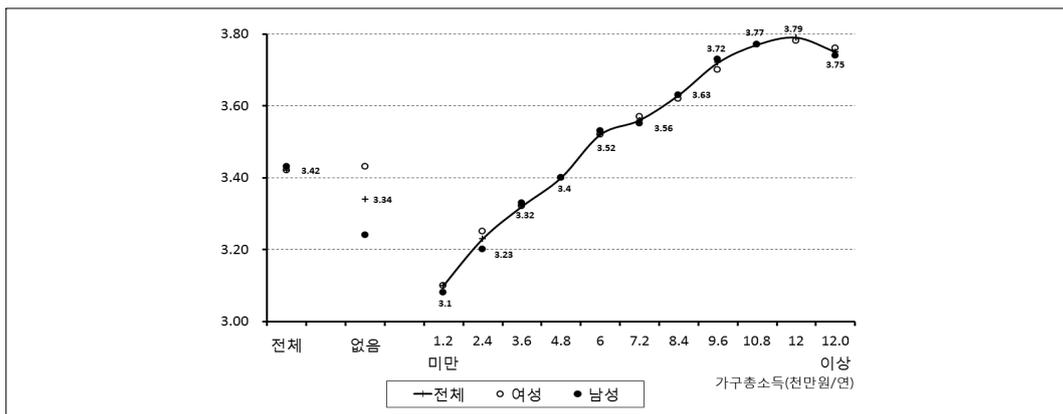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하다.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7차조사(2014년) 자료에 따르면, 다음 그림에서 보듯, 30대까지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낮아

[그림 1] 연령과 행복도



주 : 5. 매우 만족스럽다 ... 1. 매우 불만족스럽다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제17차 조사(2014년)(1998년 표본) 원자료.

[그림 2] 가구총소득과 행복도



주 : 5. 매우 만족스럽다 ... 1. 매우 불만족스럽다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제17차 조사(2014년)(1998년 표본) 원자료.

7) 『일과 행복(I)』(안주엽 외, 2015)의 제3장에서 발췌하여 정리. 상세한 논의는 보고서 참조.

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가구총소득이 높아질수록 행복도가 상승하지만 상당 수준을 넘어 서면 행복도가 더 높아지지는 않는 현상(Easterlin paradox)이 일어난다.

먼저 행복도( $h$ )가 인구학적 특성( $X$ )과 소득·자산( $Z$ )에 의해 결정되는 행복결정모형을

$$\text{모형 (1) } h = X\beta + Z\gamma + \epsilon \quad h = 1(\text{매우 불만족}), \dots, 5(\text{매우 만족})$$

〈표 1〉 행복결정모형의 추정결과

변수	전체	여성	남성
남성	-0.0579 (.0428)		
연령/10	-0.7652 (.0858) ***	-0.4977 (.1218) ***	-1.0514 (.1253) ***
(연령/10)의 제곱	0.0608 (.0083) ***	0.0379 (.0117) ***	0.0860 (.0123) ***
로그(교육연한)	0.2473 (.0564) ***	0.1679 (.0682) **	0.4710 (.1146) ***
학위효과: 전문학사	0.1968 (.0683) ***	0.2932 (.0949) ***	0.1012 (.1004)
학위효과: 학사 이상	0.4219 (.0585) ***	0.4819 (.0855) ***	0.3299 (.0864) ***
혼인상태(기준: 기혼유배우)			
미혼	-0.8160 (.0823) ***	-0.5931 (.1221) ***	-1.0523 (.1142) ***
별거	-0.8603 (.2721) ***	-0.7197 (.3566) **	-1.1196 (.4242) ***
이혼	-0.8978 (.1155) ***	-0.6633 (.1551) ***	-1.2262 (.1750) ***
사별	-0.2828 (.0934) ***	-0.2797 (.1096) **	-0.4190 (.2157) *
가구총소득(천만 원)	0.1595 (.0103) ***	0.1660 (.0146) ***	0.1535 (.0149) ***
가구총소득 제곱	-0.0022 (.0003) ***	-0.0025 (.0004) ***	-0.0020 (.0003) ***
소득원별 소득 존재			
근로소득	-0.3080 (.0790) ***	-0.4191 (.1022) ***	-0.1132 (.1253)
금융소득	0.0690 (.0628)	0.0726 (.0876)	0.0636 (.0904)
부동산소득	0.3178 (.0753) ***	0.3325 (.1033) ***	0.2994 (.1103) ***
사회보험소득	0.1293 (.0569) **	0.1100 (.0763)	0.1622 (.0863) *
이전소득	0.0073 (.0449)	-0.0051 (.0626)	0.0139 (.0646)
기타소득	-0.2096 (.0810) ***	-0.2296 (.1111) **	-0.1971 (.1187) *
부동산자산 보유	0.2823 (.0547) ***	0.1950 (.0754) ***	0.3873 (.0797) ***
금융자산 보유	0.6249 (.0519) ***	0.6024 (.0710) ***	0.6478 (.0765) ***
부채 보유	-0.1791 (.0445) ***	-0.1897 (.0614) ***	-0.1809 (.0649) ***
입주형태(기준: 자가)			
전세	-0.2793 (.0568) ***	-0.1940 (.0783) **	-0.3809 (.0827) ***
월세	-0.7842 (.0690) ***	-0.7881 (.0941) ***	-0.7698 (.1018) ***
기타	0.1164 (.1053)	-0.0359 (.1473)	0.2877 (.1518) *
주택 유형(기준: 아파트)			
단독주택	-0.2537 (.0555) ***	-0.2743 (.0761) ***	-0.2202 (.0814) ***
연립/다가구, 상가	-0.2804 (.0533) ***	-0.2556 (.0735) ***	-0.2940 (.0779) ***
표 본	11,696	5,621	5,075

주: 서열로짓모형. 상수항의 추정치는 보고에서 제외. (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 \*\*, \*는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제17차 조사(2014년) (1998년 표본) 원자료.

으로 설정한다. 인구학적 특성에는 성, 연령/10(과 이의 제곱), 교육연한(로그), 학위효과(전문 학사와 학사 이상), 혼인상태가 포함되고, 소득·자산에는 가구총소득(과 이의 제곱), 소득원별 소득 존재,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 및 부채 보유, 입주형태, 주택 유형이 포함되며,  $\beta$ 와  $\gamma$ 는 추정되어질 계수이다. 행복도가 서열을 나타내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이므로 이의 추정에서는 서열로짓모형을 적용한다.

<표 1>은 행복결정모형(모형 1)의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표에서 보듯, 다양한 결정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남성과 여성의 행복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통상 여성이 남성보다 행복도가 높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일정 연령(63세 전후)까지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행복도가 낮아지다가 그 이후에는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교육수준은 행복도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데, 전문학사와 대학 이상의 학사 학위의 추가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다. 기혼 유배우자와 비교할 때, 미혼자나 기혼 무배우자(이혼자, 별거자, 사별자) 모두 행복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크고, 특히 이혼상태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총소득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행복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데, 소득원별 소득의 존재가 미치는 효과를 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근로소득의 존재는 여성의 행복도에 부정적 효과를, 사회보험소득은 남성의 행복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반면 부동산소득은 남성과 여성의 행복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며, 금융소득과 이전소득은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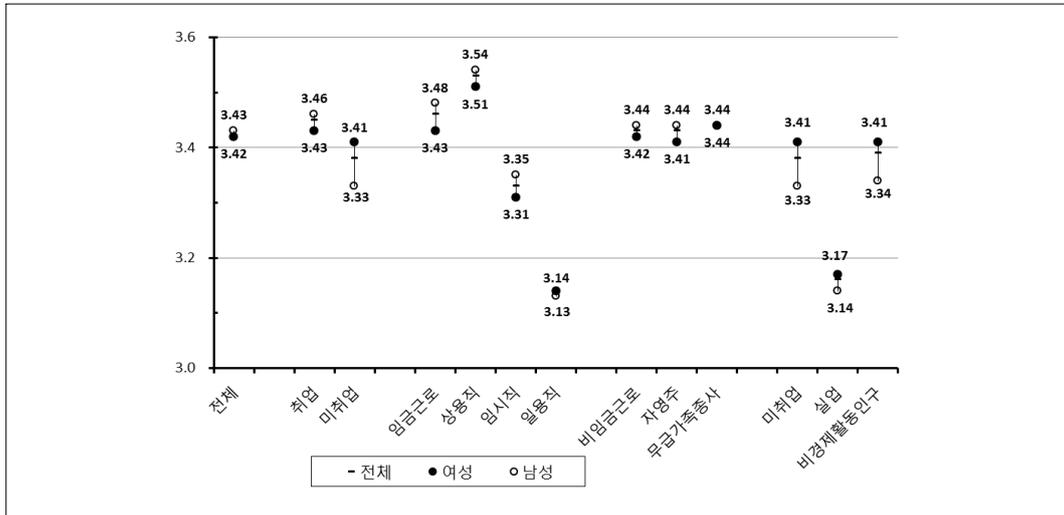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의 보유는 행복도를 높이는 반면 부채의 보유는 부정적 효과를 미치며, 자가와 비교할 때, 전세와 월세 모두 행복도가 낮고, 아파트 거주자와 비교할 때, 다른 유형의 주택 거주자의 행복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 III. 경제활동상태와 행복

[그림 3]은 다양한 경제활동상태별 남성과 여성의 행복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 남성과 여성의 행복도 격차는 0.01로 무시할 수준인데,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 행복도의 차이는 남성에서는 0.13으로 상당한 반면 여성에서는 0.02로 무시할 수준이다.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 간 행복도의 차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거의 없다.

임금근로 중에서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간 행복도의 차이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뚜렷한 반면 비임금근로에서는 자영주와 무급종사자 간 차이가 거의 없고, 미취업자 중에서는 실업자의 행복도가 현저하게 낮은 반면, 비경제활동인구의 행복도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월등히 높

[그림 3] 경제활동상태와 행복



주 : 5. 매우 만족스럽다 ... 1. 매우 불만족스럽다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제17차 조사(2014년)(1998년 표본) 원자료.

다. 여성에서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비경제활동상태에 있을 때 오히려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성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표 2> 경제활동상태와 행복도 : 단순모형

변수	기준	전체	여성	남성
(1) 취업	미취업상태	0.1928 (.0386) ***	0.0420 (.0526)	0.4269 (.0632) ***
(2) 임금근로		0.2199 (.0418) ***	0.0532 (.0581)	0.4657 (.0666) ***
비임금근로		0.1268 (.0548) **	0.0139 (.0811)	0.3339 (.0805) ***
(3) 임금근로	비경제활동인구상태	0.1933 (.0422) ***	0.0360 (.0584)	0.4230 (.0679) ***
비임금근로		0.1001 (.0551) *	-0.0033 (.0813)	0.2911 (.0816) ***
실업		-0.8425 (.1713) ***	-0.8274 (.2493) ***	-0.7549 (.2388) ***
(4) 상용직		0.4435 (.0460) ***	0.3078 (.0669) ***	0.6544 (.0713) ***
임시직		-0.2610 (.0804) ***	-0.3690 (.1026) ***	-0.0302 (.1305)
일용직		-0.9652 (.1054) ***	-1.0025 (.1717) ***	-0.8303 (.1393) ***
자영주		0.0935 (.0593)	-0.0504 (.0998)	0.2955 (.0829) ***
무급가족종사자	0.1326 (.1120)	0.0729 (.1231)	0.2567 (.2718)	
실업	-0.8519 (.1722) ***	-0.8334 (.2501) ***	-0.7674 (.2405) ***	
표 본		10,696	5,621	5,075

주 : 설명변수로 경제활동상태만을 고려한 서열로짓모형의 추정. 상수항의 추정치는 보고에서 제외.  
 \*\*\*, \*\*, \*는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제17차 조사(2014년)(1998년 표본) 원자료.

먼저 행복도의 결정요인으로 다양한 경제활동상태( $V$ )만을 고려한 단순모형

$$h = V\alpha + \epsilon \quad \alpha : \text{추정되어질 계수}$$

을 추정한 결과를 보자. 남성에서는 취업자,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모두 미취업자에 비해 행복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지만 여성에서는 그렇지 않다. 즉 여성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 행복도에서 차이가 없어, 반드시 일하는 여성의 행복도가 높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취업자를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였을 때, 실업자의 행복도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현저하게 낮고, 여성에서는 상용직 일자리만 행복도를 높이고 임시직이나 일용직 일자리는 오히려 행복도를 낮추며, 남성에서는 상용직 일자리와 자영주의 행복도가 높은 반면 일용직 일자리는 행복도를 낮추고 임시직 일자리는 부정적 효과를 갖지는 않는다.

이제 행복결정모형(모형 1)에 다양한 경제활동상태( $V$ )를 추가한 모형은

$$\text{모형 (2)} \quad h = V\alpha + X\beta + Z\gamma + \epsilon$$

이 된다. 가장 세분화된 경제활동상태를 추가한 추정결과를 보면, 다음 표에서 보듯, 남성은

〈표 3〉 행복결정모형 : 경제활동상태의 추가

변 수	전 체	여 성	남 성
경제활동상태(기준: 비경제활동인구)			
상용직	0.2437 (.0602) ***	-0.0113 (.0792)	0.7456 (.1085) ***
임시직	0.0175 (.0892)	-0.2159 (.1124) *	0.5429 (.1528) ***
일용직	-0.3105 (.1143) ***	-0.4924 (.1803) ***	0.1414 (.1624)
자영주	0.1721 (.0731) **	0.0258 (.1123)	0.5795 (.1164) ***
무급가족종사자	0.1020 (.1228)	0.0576 (.1368)	0.3911 (.2945)
실업	-0.5955 (.1788) ***	-0.7028 (.2583) ***	-0.2317 (.2551)
가구총소득	0.1543 (.0103) ***	0.1621 (.0147) ***	0.1546 (.0150) ***
가구총소득의 제곱	-0.0021 (.0003) ***	-0.0024 (.0004) ***	-0.0020 (.0003) ***
남성	-0.1064 (.0463) **		
연령/10	-0.8171 (.0907) ***	-0.4511 (.1269) ***	-1.3745 (.1400) ***
연령/10의 제곱	0.0666 (.0088) ***	0.0333 (.0122) ***	0.1209 (.0138) ***
로그(교육연한)	0.2565 (.0566) ***	0.1686 (.0683) **	0.4727 (.1152) ***
표 본	10,696	5,621	5,075

주 : 행복결정모형에 세분화된 경제활동상태를 추가한 서열로짓모형의 추정치. (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 \*\*, \*는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유의함을 의미. 4개의 상수, 학위효과, 혼인상태, 소득원별 소득 존재,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부채의 존재, 입주형태 및 주택 유형의 추정치는 보고에서 제외.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제17차 조사(2014년)(1998년 표본) 원자료.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상용직과 임시직 일자리 그리고 자영자가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일용직이나 무급가족종사자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는 반면 여성에서는 임시직과 일용직 일자리가 부정적 효과를 보이며 나머지 종사상지위에서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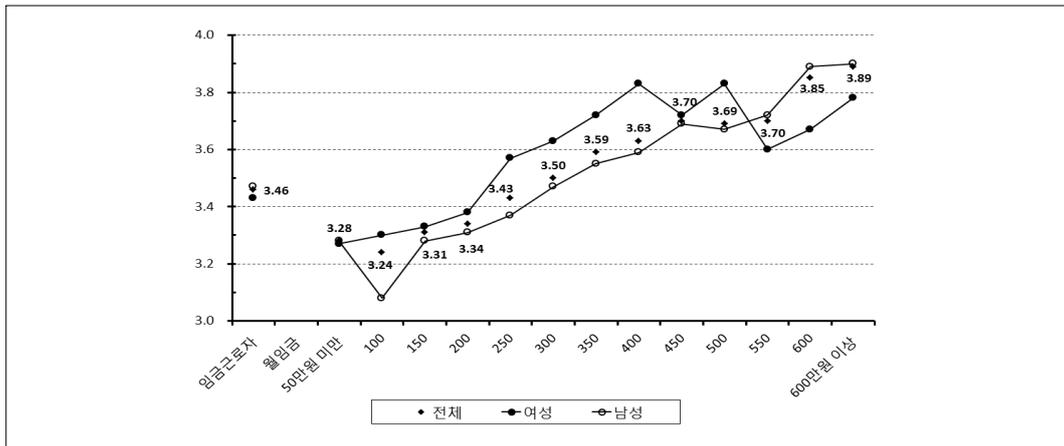
상대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일이 행복도에 미치는 효과가 종사상지위에 따라 부정적이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편 행복결정모형에 경제활동상태를 추가하여 통제하였을 때 남성의 행복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모형 (1)의 추정결과와는 달리, 기존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 Ⅳ. 임금근로자의 행복 결정요인<sup>8)</sup>

### 1. 근로조건과 행복

한국노동패널 제17차년도 조사(2014년)의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자리의 주요 특성이 행복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자. 다음 그림과 표는 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과 행복도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 전반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아질수록 행복도가 상승하며, 월평균 임금

[그림 4] 임금수준과 행복



주 : 5. 매우 만족스럽다 ... 1. 매우 불만족스럽다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제17차 조사(2014년)(1998년 표본) 원자료.

8) 보다 상세한 논의는 『일과 행복(I)』 제5장을 참조.

〈표 4〉 임금과 행복도 : 단순모형

변 수	전 체	여 성	남 성
<b>월임금 수준</b>			
(1) 월임금(백만 원)	0.4000 (.0233) ***	0.4823 (.0493) ***	0.4491 (.0306) ***
(2) 월임금(백만 원)	0.5160 (.0296) ***	0.6990 (.0671) ***	0.5964 (.0398) ***
월임금의 제곱	-0.0120 (.0015) ***	-0.0305 (.0053) ***	-0.0131 (.0020) ***
(3) 로그(월임금)(만 원)	0.8848 (.0505) ***	0.7675 (.0800) ***	1.2528 (.0785) ***
<b>시간당 임금</b>			
(1) 시간당 임금(천 원)	0.0797 (.0042) ***	0.0968 (.0085) ***	0.0841 (.0053) ***
(2) 시간당 임금(천 원)	0.1255 (.0106) ***	0.1842 (.0185) ***	0.1273 (.0146) ***
시간당 임금의 제곱	-0.0012 (.0002) ***	-0.0027 (.0005) ***	-0.0011 (.0003) ***
(3) 로그(시간당 임금)(원)	1.0983 (.0555) ***	1.1707 (.0961) ***	1.2696 (.0783) ***
표본: 임금 수준	4,420	1,800	2,620

주: (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 \*\*, \*는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유의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제17차 조사(2014년)(1998년 표본) 원자료.

이 5백만 원 이하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행복도가 높은 반면 그 이상에서는 남성의 행복도가 여성보다 높아 임금수준에 따라 성별 행복도의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임금 관련 변수만을 포함한 단순모형의 추정치를 보면, <표 4>에서 보듯, 월평균임금이나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높아지는데, 일정 수준을 넘으면 행복도가 더 이상 상승하지는 않는다.

근로시간이 임금근로자의 행복도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먼저 근로일수가 많은 여성의 행복도가 낮는데, 2차식을 도입한 추정결과를 보면, 여성은 4.2일, 남성은 4.7일 근무할 때 행복도가 가장 높다.<sup>9)</sup> 마찬가지로 총근로시간 또는 정규근로시간이 긴 근로자의 행복도가 낮는데, 2차식을 도입한 추정결과, 남성은 총근로시간이 47.6시간, 정규근로시간이 40.2시간일 때, 여성은 각각 32.2시간과 31.4시간 일할 때 행복도가 가장 높다.<sup>10)</sup> 근로시간의 정규성이 없거나 근로시간이 불규칙한(계절적 또는 비계절적) 남성과 여성 근로자의 행복도가 낮으며, 16시간 이하(8시간 이하)의 초과근로를 하는 남성(여성) 근로자의 행복도가 초과근로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 비해 행복도가 더 높다.

고용형태가 행복도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예상대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행복도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다. 비정규직을 고용형태별로 세분

9) 주5일근로의 행복도는 3.55에 이르는 반면 주6일은 3.39, 주7일은 3.24, 주5일 미만은 3.22~3.25.  
 10) 총근로시간이 주당 40~48시간 미만일 때 행복도가 3.54로 가장 높고 40시간 미만에서는 3.30~3.33, 48시간을 초과하면 점차 낮아져 60시간을 초과하면 3.28. 정규근로시간 역시 주당 40시간일 때 행복도가 3.56으로 가장 높고, 근로시간이 늘어날수록 낮아져 주당 60시간을 초과하면 3.21에 불과.

〈표 5〉 근로시간과 행복도 : 단순모형

변 수	전 체	여 성	남 성
근로일수			
(1) 근로일수	-0.0113 (.0365)	-0.1124 (.0569) **	0.0622 (.0477)
(1') 근로일수 근로일수의 제곱	2.3079 (.2060) ***	1.6525 (.3102) ***	2.8327 (.2751) ***
근로일수의 제곱	-0.2534 (.0222) ***	-0.1948 (.0337) ***	-0.3005 (.0295) ***
근로시간			
(1) 총근로시간	-0.0680 (.0231) ***	-0.1147 (.0362) ***	-0.0627 (.0315) **
(1') 총근로시간 총근로시간의 제곱	0.4149 (.0790) ***	0.3562 (.1121) ***	0.5771 (.1222) ***
총근로시간의 제곱	-0.0500 (.0078) ***	-0.0553 (.0123) ***	-0.0606 (.0112) ***
(2) 정규근로시간	-0.1386 (.0259) ***	-0.1456 (.0390) ***	-0.1605 (.0357) ***
(2') 정규근로시간 정규근로시간의 제곱	0.5287 (.0908) ***	0.4527 (.1213) ***	0.6538 (.1467) ***
정규근로시간의 제곱	-0.0725 (.0095) ***	-0.0720 (.0138) ***	-0.0813 (.0142) ***
(3) 초과근로시간 (기준: 0시간, 정규근로시간 있음)			
0시간(정규근로시간 없음)	-0.5316 (.0924) ***	-0.3929 (.1488) ***	-0.6433 (.1189) ***
4시간 이하	0.4303 (.1262) ***	0.5254 (.2096) **	0.3515 (.1588) **
8시간 이하	0.4802 (.1150) ***	0.6458 (.2216) ***	0.3834 (.1366) ***
12시간 이하	0.2274 (.1274) *	-0.0714 (.2696)	0.2639 (.1476) *
16시간 이하	0.6335 (.2020) ***	0.6335 (.4252)	0.5913 (.2312) **
16시간 초과	0.1966 (.1692)	-0.4253 (.3726)	0.3127 (.1944)
(4) 근로시간의 정규성 없음	-0.6440 (.0901) ***	-0.4571 (.1469) ***	-0.7748 (.1145) ***
(5) 근로시간 불규칙, 비계절성 근로시간 불규칙, 계절성	-0.8082 (.1517) ***	-0.6180 (.2269) ***	-0.9548 (.2044) ***
근로시간 불규칙, 계절성	-1.4397 (.1513) ***	-1.1799 (.3080) ***	-1.6148 (.1787) ***
표 본	4,435	1,809	2,626

주: (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 \*\*, \*는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제17차 조사(2014년)(1998년 표본) 원자료.

하여 보면, 정규직 근로자의 행복도와 비교할 때 일일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및 용역근로자의 행복도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낮은 반면, 시간제근로자와 독립도급근로자의 행복도는 남성에서만 낮고, 기간제근로자와 재택근로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현재의 고용형태를 비자발적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행복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데, 고용형태의 선택사유를 세분하여 보면,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원하는 일자리가 없거나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없어 현재 고용형태를 선택한 근로자의 행복도가 유의하게 낮다. 또한 고용안정성이 없다고 인식하는 근로자의 행복도가 현저하게 낮다.

〈표 6〉 고용형태와 행복도 : 단순모형

변 수	전 체	여 성	남 성
(1) 비정규직(기준: 정규직)	-0.9703 (.0639) ***	-0.8442 (.0954) ***	-1.0771 (.0884) ***
(2) 비정규직 유형(기준: 정규직)			
기간제근로	-0.1687 (.0976) *	-0.1693 (.1360)	-0.1287 (.1409)
일일근로	-1.2004 (.1280) ***	-0.8917 (.2139) ***	-1.3973 (.1631) ***
시간제근로	-0.2194 (.1123) *	-0.0704 (.1319)	-0.5249 (.2388) **
파견근로	-0.6645 (.2439) ***	-0.5137 (.3080) *	-0.8708 (.3988) **
용역근로	-0.4603 (.1594) ***	-0.5710 (.2759) **	-0.4254 (.1981) **
독립도급근로	-0.5738 (.2373) **	-0.4840 (.2971)	-0.6696 (.3935) *
재택근로	0.4905 (.5666)	0.3972 (.6359)	0.7831 (1.2242)
(3) 고용형태 선택: 비자발적	-0.8019 (.0726) ***	-0.8677 (.1132) ***	-0.7521 (.0947) ***
(4) 고용형태 선택 사유(기준: 1. 근로조건 등에 만족)			
2.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0.1843 (.0856) **	-0.2740 (.1337) **	-0.1178 (.1117)
3.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1.3579 (.0763) ***	-1.3822 (.1203) ***	-1.3393 (.0987) ***
4.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1.1939 (.1640) ***	-0.7600 (.2553) ***	-1.5006 (.2174) ***
5.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0.5282 (.4346)	-0.2603 (.7499)	-0.6674 (.5352)
6.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0.5484 (.2126) ***	-0.7602 (.3513) **	-0.4302 (.2689)
7. 육아·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0.2897 (.3289)	-0.2559 (.3368)	2.3269 (3.0649)
8. 학업·학원수강·직업훈련·취업준비 등 병행	1.1245 (.6855) *	1.4189 (.9053)	0.6461 (1.0077)
9.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0.6422 (.2565) **	-0.6511 (.3830) *	-0.6196 (.3457) *
10.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0.1683 (.4726)	0.2201 (.5146)	0.2633 (1.2117)
(5) 고용안정성 인식: 없음(기준: 있음)	-0.7011 (.0779) ***	-0.4381 (.1126) ***	-0.9214 (.1091) ***
표 본	4,435	1,809	2,626

주: (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 \*\*, \*는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제17차 조사(2014년)(1998년 표본) 원자료.

## 2. 임금근로자의 행복결정요인

다음 <표 7>은 다양한 일자리의 특성을 고려한 모형 중 최적모형

$$h = W\delta + \epsilon \quad W: \text{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근속기간, 기업유형, 노동조합 등}$$

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11)

표에서 보듯, 시간당 임금으로 표현한 임금수준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행복도에 매우 유

11) 임금근로자의 일자리특성과 행복의 최적모형의 탐색과정은 『일과 행복(I)』 제5장을 참조.

〈표 7〉 일자리 특성과 행복도의 최적모형

변 수	전 체	여 성	남 성
시간당 임금(천 원)	0.1018 (.0121) ***	0.1454 (.0210) ***	0.1068 (.0174) ***
시간당 임금의 제곱	-0.0009 (.0003) ***	-0.0020 (.0005) ***	-0.0008 (.0004) **
정규근로시간/10	0.1589 (.1174)	0.2190 (.1589)	0.2529 (.1809)
(정규근로시간/10)의 제곱	-0.0218 (.0114) *	-0.0362 (.0163) **	-0.0230 (.0168)
초과근로시간	-0.0103 (.0057) *	-0.0169 (.0121)	-0.0051 (.0066)
근로시간 규칙성			
근무시간 불규칙, 비계절적	-0.0718 (.1888)	0.1511 (.2896)	-0.1099 (.2555)
근무시간 불규칙, 계절적	-0.6677 (.2009) ***	-0.5275 (.3592)	-0.6708 (.2584) ***
고용형태(기준: 정규직)			
기간제근로	0.0783 (.1071)	-0.0540 (.1504)	0.2667 (.1563) *
일일근로	-0.3882 (.1805) **	-0.1783 (.2744)	-0.4650 (.2432) *
시간제근로	0.1695 (.1452)	0.2335 (.1776)	-0.1325 (.2817)
파견근로	-0.3359 (.2489)	-0.3194 (.3146)	-0.3917 (.4082)
용역근로	-0.0402 (.1649)	-0.2362 (.2834)	0.0110 (.2075)
독립도급근로	-0.4795 (.2510) *	-0.8372 (.3265) **	-0.2237 (.4061)
재택근로	0.8395 (.5735)	0.6743 (.6567)	1.2893 (1.2287)
고용형태 선택 비자발적	-0.4343 (.0783) ***	-0.5896 (.1217) ***	-0.2907 (.1042) ***
기업유형(기준: 민간사업체)			
외국인회사	0.0719 (.4056)	0.1365 (.7274)	0.0073 (.4979)
정부투자기관	0.2092 (.1510)	-0.0089 (.2243)	0.4203 (.2102) **
법인단체	0.2406 (.1455) *	-0.2327 (.1964)	0.7696 (.2326) ***
정부기관	0.4153 (.1252) ***	0.2852 (.1910)	0.4626 (.1706) ***
무소속	-0.3181 (.2274)	-0.8088 (.3577) **	0.0803 (.3001)
시민종교단체	1.2574 (.4529) ***	0.9297 (.7415)	1.6123 (.5842) ***
노동조합(기준: 없음)			
노동조합 있음, 가입 안함	0.3216 (.1293) **	0.5132 (.2111) **	0.1282 (.1656)
노동조합 있음, 가입	0.2210 (.1141) *	0.2177 (.2091)	0.1784 (.1381)
표 본	4,420	1,800	2,620

주: (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 \*\*, \*는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제17차 조사(2014년) (1998년 표본) 원자료.

의한 긍정적 효과를 갖는데,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행복도가 더 이상 상승하지는 않는다. 일자리의 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남성에서는 정규근로시간이나 초과근로시간 모두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지만 계절적 이유에 따른 근무시간의 불규칙성만 부정적 효과를 가지는 반면 여성에서는 정규근로시간만이 2차식의 유의한 효과를 갖는다.

고용형태가 행복도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남성에서는 일일근로와 기간제근로가 한계적 유의수준(10%)에서 유의한 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반면 여성에서는 독립도급근로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보인다. 고용형태의 선택에서 비자발성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행복도에 매우 유의미한 부정적 효과를 갖는다.

기업유형이 행복도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민간사업체와 비교할 때, 남성에서는 정부투자기관, 법인단체, 정부기관 및 시민종교단체 모두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를 갖는 반면 여성에서는 무소속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형태에서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효과를 보면, 남성에서는 노동조합의 존재나 가입 여부 모두 유의한 효과를 갖지 않는 반면 여성에서는 노동조합이 있지만 가입하지 않았을 때 행복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3. 임금근로자의 행복결정모형 : 일자리 특성의 효과

<표 8>은 행복결정모형(모형 1)에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특성( $W$ )을 추가로 고려한 모형

$$\text{모형 (3)} \quad h = W\delta + X\beta + Z\gamma + \epsilon$$

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에서 보듯, 행복결정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일자리의 특성이 임금근로자의 행복도에 미치는 추가효과는 시간당 임금과 근로시간 및 비정규직 여부와 고용형태 선택의 자발성으로 압축된다고 볼 수 있다. 시간당 임금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 효과를, 비정규직은 부정적 효과를 갖는다. 정규근로시간은 남성의 행복에는 긍정적 효과를 갖지만 여성의 행복에는 유의한 효과를 갖지 않으며, 초과근로시간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유의한 효과를 갖지 않는데, 근로시간이 계절적 특성으로 불규칙할 때 남성 근로자의 행복도가 낮아진다. 비정규직의 부정적 효과에 더하여 고용형태 선택의 비자발성 역시 추가의 부정적 효과를 갖는다. 여성 근로자의 행복은 기업의 유형과는 전혀 무관한 반면 남성 근로자는 민간사업체에서 일할 때보다는 법인단체나 정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또는 시민종교단체에서 일할 때 행복도가 높다.

〈표 8〉 실증분석모형 : 임금근로자의 일과 행복

변수	전체	여성	남성
시간당 임금(천 원)	0.0362 (.0060) ***	0.0219 (.0105) **	0.0532 (.0079) ***
정규근로시간/10	0.0566 (.1116)	-0.0994 (.1533)	0.3905 (.1840) **
(정규근로시간/10)의 제곱	-0.0095 (.0112)	-0.0041 (.0168)	-0.0331 (.0172) *
초과근로시간	-0.0068 (.0060)	-0.0161 (.0126)	-0.0032 (.0070)
근무시간 규칙성			
근무시간 불규칙, 비계절적	0.0387 (.1749)	0.0982 (.2610)	0.1205 (.2460)
근무시간 불규칙, 계절적	-0.4872 (.1810) ***	-0.4424 (.3525)	-0.4902 (.2268) **
고용형태 선택 비자발적	-0.1960 (.0859) **	-0.2196 (.1246) *	-0.2387 (.1236) *
비정규직	-0.3449 (.0816) ***	-0.4679 (.1271) ***	-0.2540 (.1082) **
기업 유형			
외국인회사	0.0010 (.4108)	0.1250 (.7349)	-0.1234 (.5023)
정부투자기관	0.2326 (.1549)	0.0050 (.2303)	0.3839 (.2134) *
법인단체	0.2056 (.1530)	-0.1652 (.2046)	0.7422 (.2450) ***
정부기관	0.3614 (.1300) ***	0.2204 (.1963)	0.4810 (.1787) ***
무소속	-0.1052 (.2307)	-0.3074 (.3646)	0.1034 (.3039)
시민총교단체	1.3261 (.4827) ***	1.2039 (.8268)	1.3297 (.5990) **
남성	-0.0695 (.0792)		
연령/10	-1.3628 (.2147) ***	-0.6404 (.3342) *	-2.0118 (.3080) ***
(연령/10)의 제곱	0.1259 (.0227) ***	0.0445 (.0362)	0.1951 (.0324) ***
로그(교육연한)	0.2681 (.1570) *	0.0655 (.2085)	0.2100 (.2645)
가구총소득(천만 원)	0.1033 (.0188) ***	0.2017 (.0383) ***	0.0497 (.0265) *
가구총소득 제곱	-0.0014 (.0005) ***	-0.0048 (.0015) ***	-0.0004 (.0007)
표본	4,420	1,800	2,620

주 : (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 \*\*, \*는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유의함을 의미.

4개의 상수, 학위효과, 혼인상태, 소득원별 소득 존재,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부채의 존재, 입주형태 및 주택 유형의 추정치는 보고에서 제외.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제17차 조사(2014년)(1998년 표본) 원자료.

## V. 나가는 글

보수의 수단이자 사회적 통합과 자아실현의 한 방편이라는 일의 긍정적 측면으로부터 ‘일하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 사람보다 행복할 것’이라는 명제를 얻을 수 있는 반면,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자산을 희생하여야 한다는 일의 부정적 의미를 고려하면 정반대의 명제를 얻을 수

도 있다. 모든 사람이 주어진 여건에서 시간 희생의 가치(일의 비효용)와 보수의 가치(근로소득의 효용)가 일치하도록 일과 여가의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노동경제학의 결론을 따르면, 일하는 사람이나 일하지 않는 사람 모두 현재의 상태가 가장 행복한 셈이다.

본고는 일이 ‘전반적 삶의 만족도’로 표현한 행복도에 미치는 효과를 한국노동패널조사 제 17차조사(2014년) 자료(1998년 표본)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먼저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여 행복결정모형을 설정하고, 이에 경제활동상태가 행복도에 미치는 추가효과의 유의성을 추정하는 한편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의 특성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의 행복도에서 성별 격차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행복하다고 인식한다는 기존 결과와는 달리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지만, 경제활동상태를 고려하면 여성보다 남성의 행복도가 유의하게 낮고,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특성을 고려한 행복도의 성별 격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30대 후반까지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다가 40대부터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행복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행복의 결정요인을 모두 통제하였을 때에는 반대로 일정 연령(약 63세)까지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행복도가 낮아지다가 그 이후에 높아진다.

셋째,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데, 임금근로자의 행복도에서는 교육수준이 유의미한 효과를 갖지 않는데, 이는 일자리의 특성 특히 임금수준이 교육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넷째, 기혼 유배우자가 미혼자나 기혼 무배우자(이혼, 별거, 사별)에 비해 행복도가 높는데, 이러한 혼인상태에 따른 행복도의 격차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욱 크고 특히 이혼의 부정적 효과가 큰데, 임금근로자의 행복도에서는 미혼과 이혼의 부정적 효과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섯째, 가구의 재정 및 주거가 행복도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가구총소득과 부동산자산 및 금융자산의 보유는 행복도에 긍정적 효과를 갖는 반면 부채의 보유는 행복도에 부정적 효과를 가지며, 자가와 비교한 전세와 월세, 아파트 거주와 비교한 단독주택 또는 연립/다가구주택 거주 역시 부정적 효과를 가지며, 이러한 양상은 경제활동상태를 고려하였을 때나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자리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여섯째, 경제활동상태의 효과를 보면, 남성에서는 취업자의 행복도가 미취업자에 비해 높지만 여성에서는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경향을 보이는데, 행복결정요인을 통제하면, 남성은 상용직이나 임시직 및 자영자로 일할 때 비경제활동상태와 비교하여 행복도가 높은 반면 여성에서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일할 때 행복도가 낮고, 실업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행복도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

마지막으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행복의 결정요인에 일자리 특성을 추가한 분석 결과, 여성에서는 시간당 임금, 비정규직 여부 및 고용형태 선택의 자발성, 근로시간의 불규칙성만 행복도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 반면 남성에서는 이에 추가하여 정규근로시간과 기업유형이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 행복도의 결정요인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5점 척도로 조사한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행복도라 간주하고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양자 간에 긴밀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분석이 근원적 문제를 갖지는 않지만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함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는 행복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한 설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2015~17년 3개년에 걸친 ‘일과 행복’의 연구의 첫해인 2015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8차 조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삶의 인식’ 부가조사를 통하여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를 포함한 행복 관련 몇 개의 설문을 포함하였다. 향후 많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자료를 이용하여 행복의 결정요인이나 일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와 행복한 일의 결정요인을 모색하는 많은 연구들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KLI**

### [참고문헌]

- 김영철·김진혁·이진수(2015),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일해야 하는 88가지 이유』, 서울: 좋은땅.
- 안주엽·이경희·길현중·오선정·김주영·김종숙·김난숙(2015), 『일과 행복(I)』,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27-01, 한국노동연구원.